

군부대 이전 공론화...50년 시민 염원 풀어줘야



2011년 45년 만에 이뤄진 무등산 정상 첫 개방 당시 천왕봉·지왕봉·인왕봉 등 정상부 3개 봉우리를 가까이서 보려는 시민들이 군부대 영내로 들어서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016년은 무등산 정상부에 군부대가 주둔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무등산 정상부(면적 21만㎡)에 주둔해온 공군부대는 그동안 광주 및 사찰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무등산 정상을 되찾으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외면해 왔다. 국민을 위한 군의 존재 이유는 완전히 망각하고 무등산 정상이 아니면 영공수호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일관해 무등산의 주인인 시민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군 당국은 3년 전부터 연 4회 무등산 정상개방을 허용하면서 부대 이전 움직임이 사그라지길 바랐지만, 광주의 어머니와도 같은 무등산이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시민들의 외침은 높아지고 있다.

무등산을 되찾기 위한 공군부대 이전의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 군부대를 이전시키려면 그 적기는 언제이며, 방법은 무엇일까.

◇무등산 군부대 이전의 핵심 열쇠=10일 광주시와 국방부, 공군부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 제 1방공유도탄여단 예하 방공포대의 이전 사업의 핵심 열쇠는 이전 대상지 주민 설득 작업이다.

국방부가 부대 이전에 착수하기 위해선 부대 이전 대상지로 압축된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이전 사업의 핵심이자 필수 과제라는 것이다.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된 환경부·국방부·광주시 관계자들은 이전 비용 부담 주체 등 이전 방식보다도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 설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공군부대가 이전에 간다면 누가 환영하겠느냐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 특성상 상부 명령

■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주둔일지

1966년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주둔
1972년	무등산 도립공원 지정
1996년	광주시, 공군부대에 무등산 정상 무기한·무상 임대
2011년	45년만에 무등산 정상 첫 개방
2012년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5~	국방부, 무등산 정상 군부대에 신형미사일 배치 계획
2020년	신형미사일 배치 계획

이전 대상지 설득 핵심 과제

신형 미사일 설치 전 옮겨야

이 내려온다면 하루빨리 무등산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해당 부대 측 속 마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전 대상지에서 부대 이전(주둔)을 동의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목소리로 나서 준다면 꼭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이전 대상지로 압축된 자치단체와 주민을 설득한 뒤 정치권 실세가 힘을 실어준다면 부대 이전이 요원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둘러싼 입장차=국방부와 광주시는 과거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대상 후보지 10여 곳을 답사하고서 전남 서해안 지역의 한 자치단체를 최적지로 압축했다. 하지만, 이후 부대 이전에 관한 논의는 진척이 없다.

단 한 뼘의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서도 무등산으로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군 당국의 입장에선 군부대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입장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의 부대 이전 촉구에도 군당국은 미동도 않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 1996년 공군부대 측에

사실상 무기한·무상으로 무등산 정상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까닭에 부대 이전을 촉구할 명분도 없는 처지다.

또한, 광주시는 연 4회씩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열고 있어 군당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당국은 틈만 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을 내세워 정상 개방 불허 카드를 만지적거리며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 부인 첫 해인 올해도 군당국은 일방적으로 광주시에 향후 무등산 정상 개방을 전면 불허하는 입장을 통보, 광주시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군부대 이전의 적기와 방법은=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공론화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광주시와 군이 밀실에서 실무를 추진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민·관·군과 정치권이 함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을 두고 지역 여론이 최근 들끓고 있는 것은 해당 부대가 점용하는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닌 광주시와 사찰 소유로 확인되면서 서다. 여기에 해당 부대가 포를 설치하기 위해 천왕봉 봉우리를 훼손한 사실, 2020년까지 무등산 공군부대에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알려지면서 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하고 있다.

광주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의 적기는 해당 부대에 신형 미사일이 배치되기 전”이라며 “무등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부대 이전을 위한 운동에 나서 광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고 이제는 무등산 87m를 되찾아 와야 할 때

지난 10월 27일 국방부 종합감사를 이틀 앞두고, 무등산 정상에 올랐다. 1100m 서석대에서 1187m 천왕봉까지, 해발 87m를 더 오를 수 있는 이 날을 수많은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렸다. 서석대를 지나 화순방향 능선 아래로 펼쳐진 운해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무등산이 보내준 작은 선물로 시민들의 얼굴에도 운해만큼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시민 김남주는 “보라/산은 무등산 그대가 없으면 민산이 따라 앉고/보라/산은 무등산 그대가 있어서만 만파가 일어선다(무등산을 위하여 중에서)”고 말했다. 5월 광주의 아픔을 말없이 보듬어주었던 무등산은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내산’이며 어디서나 올려다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다.

이렇듯 광주와 광주시민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무등산이지만 1966년부터 무등산으로 정상에 주둔해온 공군부대에 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현재 공군 방공포대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올 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국방부 시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만 21만㎡에 이르며, 특히 국립공원 내 대대급 이상 대규모 군사시설이 점용한 사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유일하다.

국가안보와 지역영공 방위를 이유로 광주시와 공군이 1996년 무상사용 협약을 맺은 이후, 광주시가 3년 단위로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다시 사용허가를 해주어, 내년 말까지 무상사용이 이뤄진다.



권은희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국방부는 최근 대공방어를 위해 2020년 대 초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도 현재 호크 미사일을 천궁미사일로 교체하게 된다. 호크 미사일의 경우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새를 바꾸는 천궁미사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많은 부대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주시와 국방부는 내년에 재승인 협약을 맺기보다는 본격적인 이전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전에 방공포대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무등산국립공원은 주상절리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수한 환경이 있다. 환경부도 “1000m 이상의 산에 주상절리대가 자연 그대로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방공포대 내 위치한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훼손을 복원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 중이다. 광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방공포대 이전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광주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었다. 이제부터는 몇몇 관련자만이 검토하고, 은밀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들의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까지는 현 주둔지를 고수한다는 것이 공군본부와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은 작전 여건을 갖춘 대체부지가 있고, 국민이 원하면 이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민군국방장관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방식과 이전주체, 이전비용 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인 검토를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과거에도 이전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 ‘기부대 양어’를 통해 시민의 예산을 들여 이전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기부대 양어’ 방식은 부지가 국방부 소유이거나 개발이익 등 기대이익이 있을 경우에 유효한 방식이다. 현재 무등산 정상은 무단 및 무상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방식을 통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부터 시민과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방부와 공군본부도 부대를 이전해도 작전상행에 문제없는 대체부지도 있으니 이전요구를 피할 명분이 없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50년간 무등산 정상을 가까이 내어준 광주시민들 마음을 헤아려 줄 때가 왔다.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주요선 KORAIL 한국관광공사
광주본부 강원본부

11월 15일(토) 당일 기차여행
모세의 기적 제부도·수원화성·수원행궁

시간	일정
08:20	광주송정역 출발
12:09	수원역 도착 후 출발
13:00	한국판 "모세의 기적" 제부도 / 수원화성(연무대) / 수원행궁 관광
19:25	수원역 출발
23:04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 85,000원~ 경노 82,000원~

11월 21일(금) 무박2일 기차여행
부산 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시간	일정
23:35	광주역 출발(광주송정역 경우)
06:00	부산 송정역 도착 후 출발
06:20	용궁사/해운대/동백섬/APEC누리마루/이기대공원둘레길/자갈치시장 관광
17:22	부산역 출발
22:59	광주역 도착

성인/경노/청소년 69,000원~ 소아 65,000원~

12월 5일(금) 철원 무박2일 기차여행
도피안사·고석정·백마고지·제2땅굴

시간	일정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07:00	신탄리역 도착 후 출발
07:30	백마고지/노동당사/도피안사/인보관광(제2땅굴)/고석정 관광
15:30	신탄리역 출발
22:00	광주역 도착

성인/경노 89,000원~ 소아 85,000원~

12월 24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남이섬·춘천

시간	일정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16:18	춘천역 출발
22:14	광주역 도착

성인/경노/청소년 85,000원~ 소아 79,000원~